사 설

세계인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월드컵 축구대회 전야의 열기가 막 달아오를 무렵에 있다. 한국 전통 고유문화를 세계에 널리 보여 줄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에 불교계가 발빠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 든든함이 앞선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는 봉축행사를 알리는 포스터 등을 제작, 각국 여행사와 공항 등에 배포하고 있고 5월11~12일에 열리는, '행사의 꽃'연등축제에 외국인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월드컵대회는 스포츠 제전이다. 그러나 이를 든든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문화일 수밖에 없다. 한국이 월드컵 유치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에도 우리 고유문화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도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한국 전통문화'라면 그 골격은 불교문화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한국불교의 수행 가풍과 정신적 유산을 보여주고, 이를 체험케 하는 '템플 스테이'를 비롯해 각 종단별로 마련된 다양한 문화행사도 월드컵 대회라는 세계적인 축제를 풍성하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월드컵 이전에 열릴 연등축제에 기대를 걸고 싶다. 연등행사가 삼국시대 이후 오랫동안 한국의 국민적 축제였다는 의미 이전에 '등불로 세상을 밝힌다'는 범종교적 상징성이 세계문화 또는 세계종교문화의 보편성 편입에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등축제의 성공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참여 열기 또한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런 열기를 이끌어 내는 것은 불자들의 몫이다.

스님들을 선방에 있게하라

내원사 스님들이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훼손위기에 놓인 천성산 살리기를 발원하며 국토순례에 나섰다. 동안거 기간 중 스님들이 선방이 아닌, 거리로 나선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담한 심정이다. 작금에 벌어지는 무분별한 국토개발의 여파가 깊은 산중의 사찰에까지 미쳤으며, 결국 수행에 전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목격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제고, 경기부양 효과로 인한 경제 활성화의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환경과, 역사문화의 유지를 외면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의 노선의 일부 구간이 그렇다. 수려한 경관과 유전자 정보의 보고로 불리는 고층습지를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그 밑을 터널로 뚫어버리면 물이 빠져나가고, 결국 사막화의 결과를 낳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금정산을 지나는 경부고속철도 구간을 지하화 하라는 범어사의 주장에도 정부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절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을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음과 진동은 사찰의 수행환경은 물론 유구한 역사문화의 보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의 예에서 이미 교훈을 얻었다. 도심지 한복판, 자동차 소음과 매연에 묻힌 숭례문이 과연 국보 1호의 품격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자문해보길 바란다.

국가기간산업시설 건설 정책이 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파괴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정부당국은 수행환경과 역사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그리하여, 스님들을 선방에 있게 하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주 필 : 김병규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올해 수행 · 교육체계 정착

승가대 · 특수교육기관 연차적 증설

인재풀 구성…전문교수 · 석박사 적소활용

조계종 교육원이 올해를 '수행 · 교육체계 정착의 해'로 정하고 교육기관 증설 및 승가교육 지도자 인프라 구축 등 승가교육 토대 확립에 나선다.

교육원장 무비스님은 22일 가진 교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승가교육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승려의 자질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교육원이 밝힌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포교전문가 양성 및 불교예술 등의 특수교육기관을 연차적으로 증설하고, 매년 60~70명 이상 기본교육기관에 입소하지 못하는 사미니들을 위한 승가대학 증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승가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지도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 강원 및 전문분야 교수, 각 분야의 석 · 박사, 전 · 현직 강사 등의 현황을 파악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인재 풀'을 구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초선원 안거 도량을 지정해 사미(니)들의 수행 및 생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무량사 화계사 연등국제불교회관 등 외국인 기초선원의 교육과정을 체계화해 내실을 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승가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통계화해 승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에도 주력하는 한편, 종단 교육 지표를 마련을 위한 교육종책 수립 등의 각종 연구사업도 진행한다. 또 지도자 과정 및 본말사 주지 연수, 직능직무 교육 등 재교육도 확대한다.

중앙승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종단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총무원, 교육원, 중앙승가대 3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교육원은 22일 중앙종회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2기 행자교육원을 3월20일부터 4월11일까지 23일간 직지사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신입생 추가모집

중앙승가대 4개학과

중앙승가대가 2002학년도 신입생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불교 · 역경 · 포교사회 · 사회복지 등 4개 학과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일반전형의 경우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타종단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

원서교부 접수는 2월8일부터 2월16일까지며, 필기고사와 면접은 2월18일 실시한다. (031)980-7716 한명우 기자

'불교사회단체협' 결성추진

시민단체연대, 다음달 발족준비

불교시민단체들이 연대하는 '불교사회단체협의회'가 곧 결성될 전망이다.

경불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불청 등 불교시민단체들은 최근 (가칭) '불교사회단체협의회 준비모임'을 갖고 다음달부터 발족준비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불교사회단체협의회는 불교시민단체 활동가 상호간의 의견개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계 현안에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불교NGO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시민단체들은 2월 24일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첫 워크숍을 열고 정부공모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협의회 발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또 3월 22일에는 불교환경연대, 우리는 선우, 중앙신도회 등 8개 단체 실무활동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두 번째 워크숍을 열고, 불교사회단체협의회 활동방향과 발족 일정 등을 결정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이정호 사무처장은 "두 번째 워크숍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협의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4월중 첫 불교지도자 대회

중앙신도회, 올해 사업계획 발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오는 4월 14일 불교지도자 대회를 여는 등 불자정체성 확립을 기조로 한 사업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4개 광역신도회 및 11개 전국단위 연합신행단체, 24개 교구신도회를 구성한 중앙신도회는 불자 대중의 역량결집을 통한 신행혁신, 이를 통한 불자 정체성 확립을 바탕으로 대사회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제1회 불교지도자 대회'를 열기로 했다.

중앙신도회는 또 재가불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21세기의 불자 모형을 제시하고, 오계를 바탕으로 한 윤리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가불자 신행형태에 대한 조사 및 연구사업, 신행문화학교 운영, 신행혁신위원회 발족 등을 통해 신행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김재경 기자

전통사찰 862곳

조계종소속 724곳

문화관광부 발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국의 전통사찰이 862곳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4일 발표한 '전통사찰현황'에 따르면 전통사찰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종단은 조계종으로 724곳(선학원 13곳 포함)을 소유하고 있다.

이어 태고종 94곳, 법화종 23곳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65곳으로 가장 많은 전통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북 107곳, 경기 91곳, 경남 90곳, 전남 충북 80곳, 충남 76곳, 서울 51곳, 강원 42곳, 대구 19곳, 울산 10곳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2000년 10월 집계한 847곳에 비해 15곳이 늘어난 것이다. 김원우 기자

행자교육원 수료자 현황

출가자 30대 · 고졸자 가장많아

요즘 출가한 스님들의 연령과 학력은 어느 정도일까. 지난 2년간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육 수료자 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은 30대,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교육원은 불교에 입문한 행자들이 스님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단계(5급 승가고시)로, 행자교육원을 이수해야만 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2000년에 실시됐던 18기, 19기 행자교육원과 2001년 20기, 21기 행자교육원 현황을 보면 네 차례 모두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42~4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대(30~36%), 40대(12~18%), 10대(3~9%)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자가 차지하는 비율(53~58%)이 가장 높았으며, 대졸(31~39%), 중졸(3~7%) 순이었다.

한명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지구촌의 연등축제로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신심있는 불자님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상주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 모연문

천주산 북장사는 신라 흥덕왕 3년인 833년에 진감국사 혜소스님께서 창건하신 1200여년 고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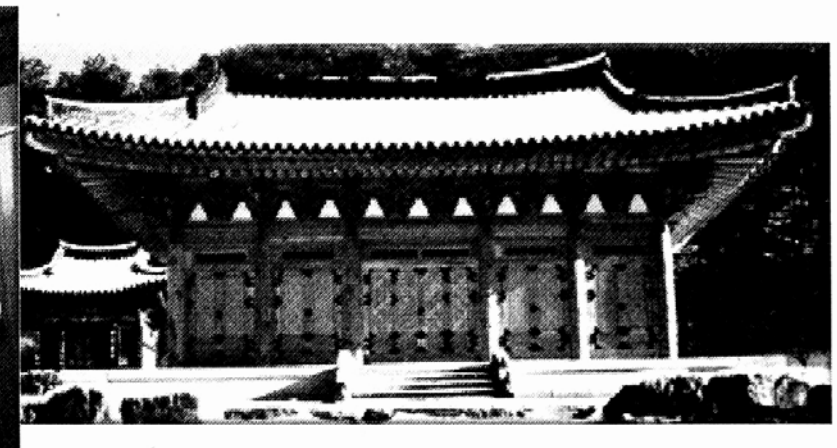
본래의 법당건물이 오랜세월 비바람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 현재의 건물로 중수하였습니다.

법당에는 목조 아미타여래좌상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님이 좌우보처로 봉안되어 있읍니다.

숙종 2년에 모신 북장사 부처님은 경 남 · 북 일원에서 제일크고 거룩한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존시에 인도 교상미국의 우진왕(優璡王)이 부처님 형상과 똑같이 조성해 모셨다는 전단향나무로 조성한 높이 2m, 10cm의 영험하신 부처님 입니다.

저희 북장사에서는 아미타 삼존불의 개금불사를 발원하였습니다.

저희 북장사 아미타 삼존불 개금불사에 전국의 신심있는 불자님의 정성스런 동참으로 복덕구족하신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소원성취 하시고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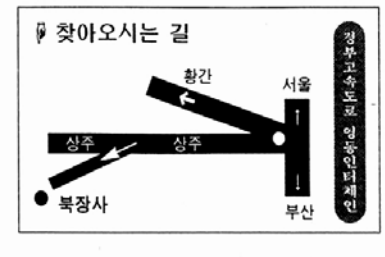
경북 상주시 내서면 북장리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북장사**

주지 효담 합장

■문의 : ☎(054)533-5103 ■농협온라인계좌 743058-51-005335 북장사

찾아오시는 길



교 통 편

◇고속버스 : 서울→상주
※택시이용

◇기차편 : 김천→상주
※택시이용

◇자가용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에서 상주쪽으로 오시다 북장사 표시판을 보고 들어시면 됩니다.